

낸드 플래시 가격도 하락세 전환

D램익스, 9월 후반 2.18달러로 떨어져 ... D램 바닥이 신호탄으로

낸드 플래시 가격이 한달 만에 다시 떨어졌다.

타이완의 시장조사 전문기관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대표적 낸드 플래시인 16Gb 2Gx8 MLC의 9월 후반 기 고정거래가격은 전반기보다 1.77% 떨어져 2.18달러로 책정됐다.

낸드 플래시 고정거래가격은 8월 후반기에 5.6% 반등하며 반짝 상승한 뒤 9월 전반기에는 보합세를 유지해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됐다.

낸드 플래시 가격은 2009년 2월 저점을 찍고 상승해 5달러대까지 치솟았으나 2010년 8월 이후에는 3달러 선으로 떨어져 소폭의 등락을 이어왔다.

특히, 2011년 1/4분기에는 잠시 오름세로 돌아섰지만 5월 후반기 이후 급전직하를 거듭해 최저치를 계속 갱신했다.

낸드 64Gb 8Gx8 MLC 가격 역시 9월 후반기 6.72달러로 전반기보다 2.6% 폭락했다.

다만, 낸드 32Gb 4Gx8 MLC는 전반기보다 0.5% 상승해 3.82달러를 기록한 반면, 낸드 32Gb 4Gx8 TLC은 10% 급락해 3.60달러에 머물렀다.

반도체 관련기업들은 속락을 면치 못하는 D램 가격도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

DDR3 1Gb 128Mx8 1066MHz의 9월 후반기 고정거래가격이 8월 후반기, 9월 전반기와 같은 0.52달러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2010년 5월에는 2.72달러까지 상승한 후 하락세로 반전해 9월 후반기 2달러, 12월 후반기 1달러 선이 무너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04>